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한국의 박지성이 보스니아 수비들을 제치고 중원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박·집중력...알프스 넘을 해법 찾았다

아드보카트호 보스니아 평가전 설기현-조재진 후반 연속골 베스트 11 가동...박지성-김남일-이을용 중원 3인방 빛나

아드보카트호가 가슴 벅찬 행렬을 시작하며 통쾌한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6일 마포구 삼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동유럽 '다크호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에서 후반 5분에 터진 설기현의 헤딩 선제골과 종료 직전 조재진의 추가골로 기습 후연한 2-0 완승을 거뒀다.

아드보카트호는 지난 해 10월 출범 이후 공식 전적 9승3무3패를 기록했다.

27일 1차 베이직캠프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향해 독일월드컵 본선 장소에 오르기 하루 전 삼암동을 온통 붉은 불길로 물들인 6만4천여 팬들의 심장을 마구 들끓게 한 한관 명승부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3위 보스니아는 지난 2월 일본과 2-2로 비긴 만만찮은 적수였다.

하지만 '베스트 중원 편대' 박지성-김남일-이을용의 초고강도 압박 앞에서 보스니아는 골골 수세에 몰려야 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23일 세네갈전과 달리 박지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우고 이영표를 왼쪽 윙백에 기용해 사실상 베스트 11을 모두 가동했다.

태극전사들은 그라운드를 지배했고 90분 내내 실새없이 파상 공세를 폈다.

후반 5분 이천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리자 안정환이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슬라이딩 슈트로 볼을 건드렸다.

붉은 발에 빗맞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이 때 골 감각을 발휘한 건 '스나이퍼' 설기현이었다. 설기현은 경중 뛰어올라 가볍게 헤딩슛으로 골에 잠겨있던 보스니아의 골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후반 중반 이후 선수 교체로 의미있는 '실합'을 계속했다.

후반 20분 이천수 대신 박주영을, 22분 김남일 대신 김상식을 넣었고 후반 35분에는 설기현을 빼고 김두현을 투입했다. 김두현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가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처럼 오른쪽 윙포 워드로 변신했다.

후반 29분 이을용의 왼발 슈트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안정환 대신 투입된 조재진은 후반 37분 기습적인 문전 침투로 네트를 갈랐으나 안타깝게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45분 박지성이 센터서클 부근에서 전진 패스를 올렸고 박주영이 빈 공간에 킥 패스를 찰러주자 조재진은 지체없이 오른발 땅볼 슈트로 보스니아의 그물을 세차게 흔들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전 국민의 열원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독일로 떠나기 직전 삼암장을 완하게 밝힌 두번째 축포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홈 무패 행진 기뻐”
아드보카트 한국 감독

“홈에서 무패 행진을 펼치고 떠날 수 있어 자랑스롭습니다”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2-0 완승으로 장식한 뒤 즉석 인터뷰에서 “오늘은 지난 화요일 경기(세네갈전)보다 훨씬 좋은 플레이를 했다. 공격 찬스가 많이 왔고 압박 수비도 훌륭했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특히 홈에서 무패 행진을 벌였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드보카트호는 지난 해 10월 출범 이후 삼암장에서 가진 여섯 차례 평가전에서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계속했다.

“체력·정신력서 패배”
슬라코비치 보스니아 감독

“한국 팀의 특징은 체력과 정신력이다” 블라즈 슬라코비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의 특징을 잘 새 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이기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이라고 분석했다.

슬라코비치 감독은 아드보카트호와 평가전에서 0-2로 완패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팀 공격에 대해 “선수들 기술이 상당히 세련됐고 좋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갔다”고 답했다.

오늘 스코틀랜드 출국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7일 오후 1시3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521편에 몸을 싣

고 1차 베이직캠프를 차리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향한다. 선장 아드보카트 감독과 조타수 린 베어백, 흥행보 코치, 그리고 23인의 전사들은 전 국민의 열원과 열정을 부른 가슴에 품고 대망의 장소에 오른다.



시청광장 찾은 하인스 워드 26일 방한한 미국 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가 서울시청 광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光銀 이정재 역도 용상 한국新 한중일 국제초청역도대회



광주은행 역도부 이정재(사진)가 '2006년 한중일 국제초청역도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원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정재가 남자 77kg급 용상에 출전, 199kg을 들어올려 3년동안 머물러 있던 한국 신기록(198kg)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정재는 또 인상에서도 155kg을 들어올려 합계 354kg으로 중국의 당행지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철수기자 bungy@

송보배, 10대 돌풍 잠재우고 시즌 첫 우승

KLPGA 레이크사이드여자오픈

프로 3년차 송보배(20·수페리어)가 10대 돌풍을 잠재우고 시즌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송보배는 26일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2.6천40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레이크사이드 여자오픈 마지막 날 2언더파 70타를 쳐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정상에 올랐다. 프로 통산 5승.

2004년과 2005년 연속 KLPGA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송보배는 최우리(21·LIG-김영주골프)에 4타 뒤진 채 출발했으나 보기는 2



개로 막고 버디 4개를 뽑아내면서 2타를 줄여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시즌 각 1승씩을 챙긴 '10대 트리오' 박희영(19·이수건설)과 신지애(18·하이마트), 안선주(19·하이마트)는 2승을 노렸으나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조경희(27·단통)와 1타차 공동 2위에 그쳤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현주(26·하이마트)와 문현희(23·휠라코리아)가 6언더파 210타로 공동 6위에 입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



파인힐스 CC, 20일 '그린 음악회'

○ 파인힐스CC(대표이사 김현수)가 개장 이래 연극공연, 재즈 콘서트, 품바공연 등을 통해 골프장 문화행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회원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그린 음악회'를 개최, 가수 강인원, 해바라기, 강인철과 함께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당 화합과 축제의 마당을 가졌다. 또한 이날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순천주요면 청년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편 파인힐스CC는 5월부터 여성우대제도 일환으로 1부시간(오전 7~9시)에 내장한 여성고객들에게 로고 볼을 선물하고 있다.

골드레이크 CC, VIP·정회원모집

○ 골드레이크 CC(대표이사 김영섭)는 정회원(1억 5천만원) 및 VIP회원(4억원)을 모집 중이다. 정회원은 월 4회 주말 부킹보장, 그린피 면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인 주중·주말준회원대우를 해주고, 콘도미니엄 사용시 년 30일을 보장해준다.

VIP회원은 프리부킹을 보장하고, 회원및 가족2인 그린피를 평생 면제 해주며 VIP회원 동반시 동반자 전원(3인)그린피를 년 30회 면제해 준다. 연 30회 초과시는 동반자 준회원대우를 해준다. (문의)골드레이크CC회원사업부 061-339-3004~6.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7일(토)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디트로이트) (07:55·Xsports), <콜로라도-샌프란시스코>(11:05·Xsports)

▲제5회 전국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고등부 결승전(15: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롯데>(17:50·SBS스포츠)

▲프로야구<SK-KIA>(18:30·MBC ESPN), <두산-삼성>(18:00·KBS SKY SPORTS) 28일(일) ▲독일월드컵 축구 평가전<스위스-코트디부아르>(00:05·KBC), <프랑스-멕시코>(03:50·KBS2)